

## 문화

창단 30주년 맞은 '놀이페 신명'

## 행복한 책읽기

스튜어트 리 앤런 '악마의 정원에서' &lt;생각의 나무 刊&gt;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결국 먹고 사는 일이다. 먹는 것 자체가 풍족한 요즈음, 식탁이 의외로 초라하다면 옆에 이홉은 디아이트 때문이다. 현대인은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기꺼이 먹는 즐거움을 회생한다.

하지만 금기를 깰 때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고 하니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최상의 맛을 선사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본능을 잘 이해한 음식의 과거사는 수백 가지의 평범한 음식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 책은 에덴동산의 사파에서부터 푸아그리에 이르기까지, 음식이라는 원초적인 쾌락이 죄가 될 때 생겨나는 회한 이야기들을 단테의 7대죄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 마냥 오래전 미개한 종족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알게 모르게



시대마다 번체들이 있었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할 때에는 노동자가, 격변기 정치 속에서는 민주 투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그 회생자였다.

지금은 경기 불황 여파로 취업을 못한 청년들과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4·50대의 직장인들이 아닌가 싶다. 경쟁자의 뇌와 살을 떠나야 그나마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경제적 구조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는 죄의식조

## 먹고 먹히는... 현대는 거대한 식인사회

색욕, 폭식, 오만, 나태, 탐욕, 불경, 분노로 나누어서 풍부한 재료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풀어낸다.

21세기에 가장 금기시한 음식은 '인육'이다. 다소 섬뜩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선족 살인자의 기행은 중국의 인육시장 역사까지 들추게 했다.

식인 역사는 고대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 아스텍족은 희생 제물을 사회 계급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심장은 태양신에게 바쳐졌고, 고기는 귀족들에게 돌아왔다. 머리는 성직자들의 몫이었다. 성직자들이 머리를 떠나면 그에 대하는 대체 물이 없었다. 즉 실체가 없는 이미지만 범람해서 인간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 이미지의 편린 속에 인간은 서로 잡아먹고 먹힘이다 스스로를 먹어치웠다.

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거대한 식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름끼치는 것은 번체들을 학유할 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오래전에 신이 죽었다고 니체가 외쳤지만 그에 달하는 대체 물이 없었다. 즉 실체가 없는 이미지만 범람해서 인간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었다.

활동경찰서 정보과로 대문 검열 받으러 다니던 시절을 이야기하던 '신명'의 초대회장 윤민식(60)씨는 "동료들과 신명을 만들고 활동했던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며 "후배들이 신명의 역사를 끊지 않고 이어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월 광주'와 뗄 수 없는 신명은 광주의 상처를 보듬고 능민, 노동자, 환경 문제 등 우리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

미감의 쾌락을 회복하는 일이 금기한 것을 행할 때 느끼는 죄의식이라면 현대라는 또 다른 정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금기해야하며 또 그 금기를 봐, 절실히 깨끗여야 하는지 묻고 답할 수 있는 마음의 휴식을 가져야만 진정한 죄의식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식인자'라고 한다.

현실에서 는 도저히

차노휘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 해학·풍자로 시대를 노래한 '30살 광대'

"힘든 시절 이겨내게 만든 건 사람과 작품"

23~31일 아카이브전, 포럼·기념공연 개최



홍성담씨가 제작한 신명 로고를 바탕으로 만든 한희원 작 '신명'.

느림과 바랜 종이 위에 적혀 조약한 타이핑 글씨가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극단 신명 '안답살 이야기' 공연 신고서. 1982년 10월 8일 '카토릭센터'에서 2000원의 티켓값을 받고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각본 심사필'이라는 낙인이 신명한 각본 심사 학회증(1987년)은 예술이 점멸당했던 그 시대의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놀이페 신명(대표 김호준)의 아카이브 전 '광대·신명을 말하다'를 준비 중인 단원들은 옛날 자료와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겨 있었다.

시대의 이야기를 전통 해학과 눈물, 웃음을 보여준 대한민국 마당극의 대명사 '놀이페 신명'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았다. '신명'은 전남 대 탈춤반과 연극반, 국악반, 조선대 탈반인 주축이되고 고(故)박효선씨 등이 참여했던 국회 '광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1982년 공식 창단됐다.

동부경찰서 정보과로 대문 검열 받으러 다니던 시절을 이야기하던 '신명'의 초대회장 윤민식(60)씨는 "동료들과 신명을 만들고 활동했던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며 "후배들이 신명의 역사를 끊지 않고 이어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1997년 열정을 쏟았던 신명아트센터를 닫아야 했을 때, 2005년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 1000만원마저 야금야금 깎아먹다 결국 담양의 한 폐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후원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선물했던, 그래서 오랫동안 전국공연을 다니는 단원들의 밭이었던 25인승 버스를 팔아야 했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내게 만든 건 역시 '사람'과 '작품'이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5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창단 30년을 맞는 놀이페 신명의 전·현직 회장인 박강의·윤만식·김호준(사진 왼쪽부터)씨가 22일 아카이브전이 열리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특히 단원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오늘의 신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고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서는 사람들'의 1997년 버전, '꽃등 들어 넘오시면', '언젠가 봄날에' 같은.(박강의 전 대표)

지금까지 38회 정기공연을 통해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지만 신명은 오랫동안 탈춤과 풍물 강습을 진행해왔다. 소리노리, 광대, 궂깨 마루 등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풍물패의 초창기 멤버들이 다 신명을 거쳐갔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단원들은 품물·탈춤·소리·연기·작품 평가 능력 등 다양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다른 지역 극단들과 마찬가지로 신명 역시 새로운 피수혈에 이를 먹고 있다. 단원 14명 중 최근 입단한 스무살 단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 중반을 넘었다. 사회 변혁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운동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신명으로서는 예술적 욕망에 더 민감한 요즘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찾는 법을 고민중이다.

신명은 올해 색다른 시도를 했다.

서울에서 열린 연방연극제에 참가,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5월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을 공연했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어간다는 생각에 단원들은 긍정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올초 3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를 꾸린 신명은 지난 4월 일본 연극인들과 연합 작품 '마당·텐트'를 만나 다-들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 를 열고 있다.

23일부터 3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아카이브전 '광대·신명을 말하다'는 정기공연 포스터, 공연사진 등을 통해 30년 역사를 돌아보는 기회이다. 특히 박래규·허달용·신양호·박문종·한희원·윤진철·윤수안씨 등 지역 작가 7인이 해석한 '신명'이 눈길을 끈다.

25일 오후 3시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포럼 '마당판 30년, 새로운 판을 꿈꾸다'가 열린다. 이어 3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념식과 기념 공연 '感(감)動(동)'을 연다. 문의 062-527-72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비엔날레 작품 같아 만들어요"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5일까지 참여작가인 대안 출신 준양(Jun Yang)씨의 작품 제작에 참여할 지

역민을 모집한다.

준양씨는 비엔날레 기간 대안아트 마켓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잡지(DAM·a magazine about/with Daein Art Market)를 작품으로 내놓을 계획으로, 실릴 기사를 함께

만들 지역 작가·편집자, 통역자 등

을 모집해 타블로이드판 잡지(4면)를 제작할 예정이다.

비엔날레재단은 또 브라질 출신

작가 모니카 나도르(Monika Nador)의 작품 '액션 인 코리아'

(Action in Korea) 제작에 참가할 시민들도 모집한다.

모니카 나도르는 도심 개발로 소

외된 계층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2주에 걸쳐 제작, 비엔날레 전시관

작품 제작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음달 1일까지 12일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작가와 스텐실 작업을 진

행한다.

문의 062-608-4331.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http://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 - 9940 총장점 062) 227 - 9970  
목포점 061) 262 - 9200 장흥점 080) 222 - 9975  
서울점 02) 765 - 9940 순천점 061) 752 - 9940

보약·홍삼은

**복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겸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